

2022학년도 2학기 교양대학 글말교실

---

Make your Eng.프.  
'Mission POSSIBLE' PART IV

---

글말특강 6회차\_ 박태미 교수님

# Make your Eng.프. 'Mission POSSIBLE' PART IV

2022년 2학기 영어특강(6차)

Make your Eng.프. 'Mission POSSIBLE' PART IV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박태미 입니다.

학기마다 특강을 준비하면서 영어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저 역시 생각하고,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이기에

스스로도 공부가 됩니다.

"Express Your Universe"

Tammy PARK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er

Nov. 16<sup>th</sup>.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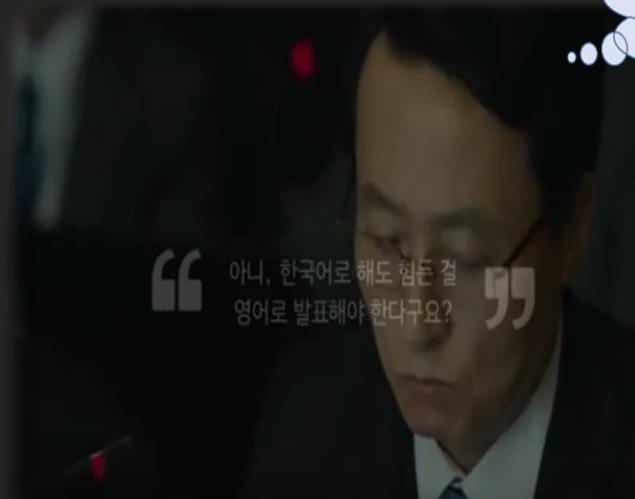


[https://youtu.be/Ep1Ph3K\\_n0E](https://youtu.be/Ep1Ph3K_n0E)

<https://youtu.be/nGnX6GkrOgk>

이번 특강에서 얘기를 나눌 대상을 굳이 정하자면 저와 같은 영어적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영어학습 환경권에서 학습기를 보냈거나 영어사용에 있어 거침없이 하이킥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공감이 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I find myself, character-wise,  
a bit too timid and shy...

“ 아니, 한국어로 해도 힘든 걸  
영어로 발표해야 한다면요? ”

모두의 앞에서 이야기 잘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 나누는 것을 잘 lead ?

<https://www.youtube.com/watch?v=Ldo7rFZEGHg>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나 학교 등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모두의 앞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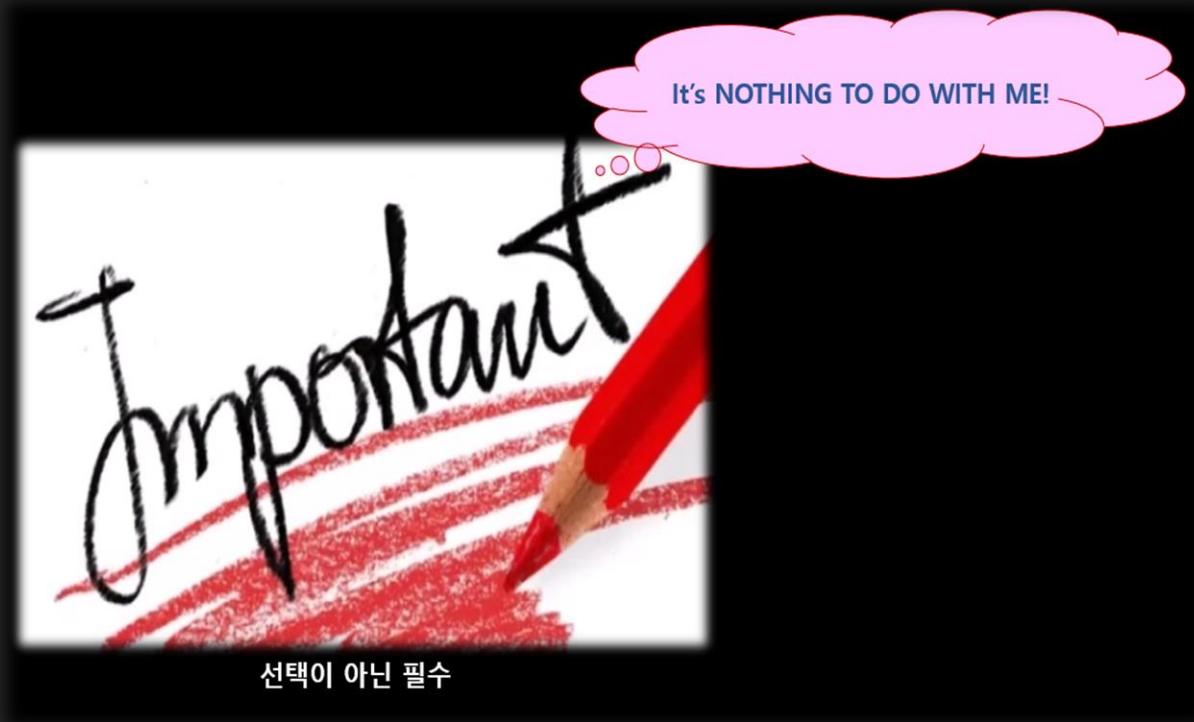
개인적인 이유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 “내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소심해서, 원래 남들 앞에 잘 나서지 않는 나라서...”

물론, 이 성격 부분에서는 심지어 밝고,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고,

또는 모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인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 나누는 것을 잘 lead한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한글, 또는 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타인 앞에 서서 말해야 하는데, 발표형식으로 해야 한다?  
아냐... 그럴 리가없어..이건 나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야...

어차피 영어를 사용하는 직장에 취업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럴 일이 있어도 번역기가 잘 되어있는 세상인데 뭘 걱정...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쉽게 단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이토록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 What does Presentation **mean** to you?

주어진 주제에 맞추어=Unit title

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해서=given textbook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며=slide

그 내용을 **이해** 시키도록 발표하는 것

우리 학생들에겐 흔히  
PT (presentation)는  
말 그대로 '발표'를 의미

AND~  
I'm doing it OK.

그동안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겪어온 저의 중간 결론은  
학생들에게 흔히 '영.프'라고 일컬어지는 English presentation은  
말 그대로 '발표 과목의 해당 Unit을 발표한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보편적인 답 중

"그 정도는 저도 괜찮게 하는데요. 크게 어렵지도 않구요." 라는 의견을 듣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맞추어

-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여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그 내용을 이해시키고 내가 이해해서 발표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발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응답이 대부분이라는 설문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내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특강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여러분의 인프 . 목적은?

수강 과목의 발표?



General  
Presentation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된 이 전제하에

학생의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의미인

인.프를 기본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연사들이나 소위 '셀럽 (celebrity)' 들의 명강연을 살펴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자학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Q. 오늘 특강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여러분의 인.프 목적은?

저는 일반적인 발표, 소위 PT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이번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Express your Universe" 를 저의 소주제로 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나요?

또 어떤 것을 자주 바라보고 있나요?

어떤 세상을 살아가든, 무엇을 자주 바라보든 모두가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우주를 탐구하고,

누군가는 철학과 인문학을 탐색하며,

또 누군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는 생명체의 감정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일인 것처럼

우리 모두의 생각, 각자의 Universe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 역시, 경이롭고 아름다운 Universe!

생활 영역에 따라 모두 다른 각자의 Universe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모두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 자신이 발표현장의 중심이고,

자신을 드러내기에 주저함이 없는

PT스타일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봅니다.

인간-문장화 된 표현을 가지고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  
'언어의 보편성' & '언어의 개별성'  
'Korean' & 'English' : 다른 기원. 다른 언어유형



<https://images.app.goo.gl/kuTyoN4Zjobciqg6>

익히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언어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상황, 즉 유전적 질병이나 후천적 장애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너무도 안타깝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의사소통의 수단을 발전시키지요.

이 능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됩니다.  
물론 의사소통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천상의 축복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교감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감정선이 있는 생명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fter watching video clips of Gorilla KoKo & Assistant Puppy)  
보신 것처럼 감정의 교류는 발생이 되지만  
인간만큼 뚜렷한 언어, 문장화 된 표현을 가지고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Koko understands spoken English and uses over a thousand signs

<https://youtu.be/FmWjYSiPZqs>



The dog is pushing it and all now. Oh, brilliant.

<https://fb.watch/gm2ldgbV3V/>

인류가 지닌 이 근원적인 '언어의 보편성'이란 것은 여전히 많은 연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보편성을 지녔음에도 언어는 각각의 나라마다 독특하게 발전한  
사회문화적 산물이기도 한 까닭에 '언어의 개별성' 이란 것이 존재하고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기원도 다르고 역사적인 공통점도 없습니다.  
게다가 언어 유형의 차이마저 상당히 큼니다.

그래서 우리 모국어로 먼저 무언가를 생각하고 내용정리를 해 두지 않으면  
우리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발표를 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지요.

## 영.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 1호

English  
Speaking

기본 생활영어 X

내용을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 O

영어사용의 취약성 걱정 O



아니..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 자체를 힘들어하는, 아니 힘든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만년 영어학습자 상태에 있는 우리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가장 먼저 영.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 1호는  
-영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생활영어도 안되는 마당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어로 바꾼 다음, 발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더불어 영어사용(발음 등)의 취약성에 대한 걱정까지!

또는 타인 앞에 서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개인성향과 성격문제가 더 큰 것일까요?

그럼 이 부분에서 매우 궁금한데...

여러분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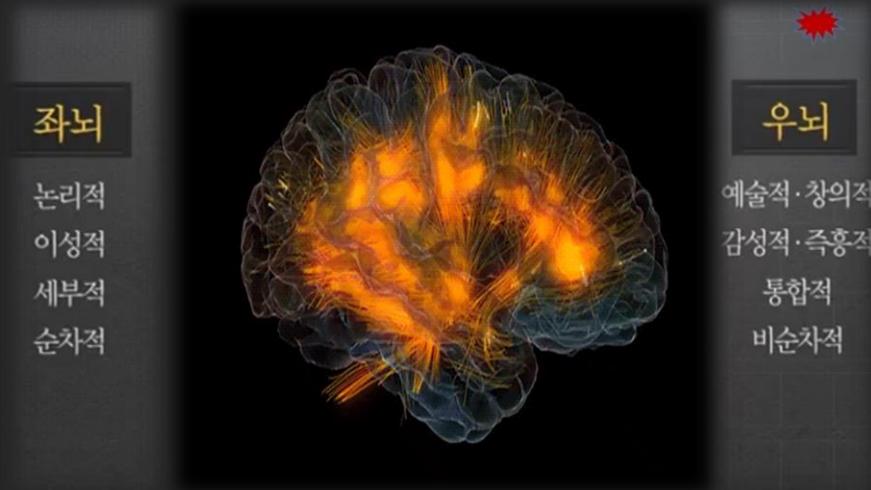
**영.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나의 이유 1호는?**

**QR을 이용해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UHPHZG70AtDS4BomFkMAEWwNfFGXXSNn4shvN2-fU4E/edit>

# Where does this **FEAR** ? come from?



- 긴장감...
- 분위기...
- 보고 읽기만...

→ 영어 갖추기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

우리 생활속에서 일반적으로 마주하지 않는 이 두려움은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요.

원래 뇌의 기능은 사진과 같다고 합니다.

마음껏 느끼고 자유롭게 연출 할 수 있는 우뇌의 영역부분의 것에는

우리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죠

그런데 발표라는 것,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작동하는 상태에서는

좌뇌활용이 극대화 된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까요?

-긴장 -분위기-보고읽기

(그렇다면 특강을 진행하는 저 역시 그 압박감에 떨리고 두려운 상태임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잉.프.라고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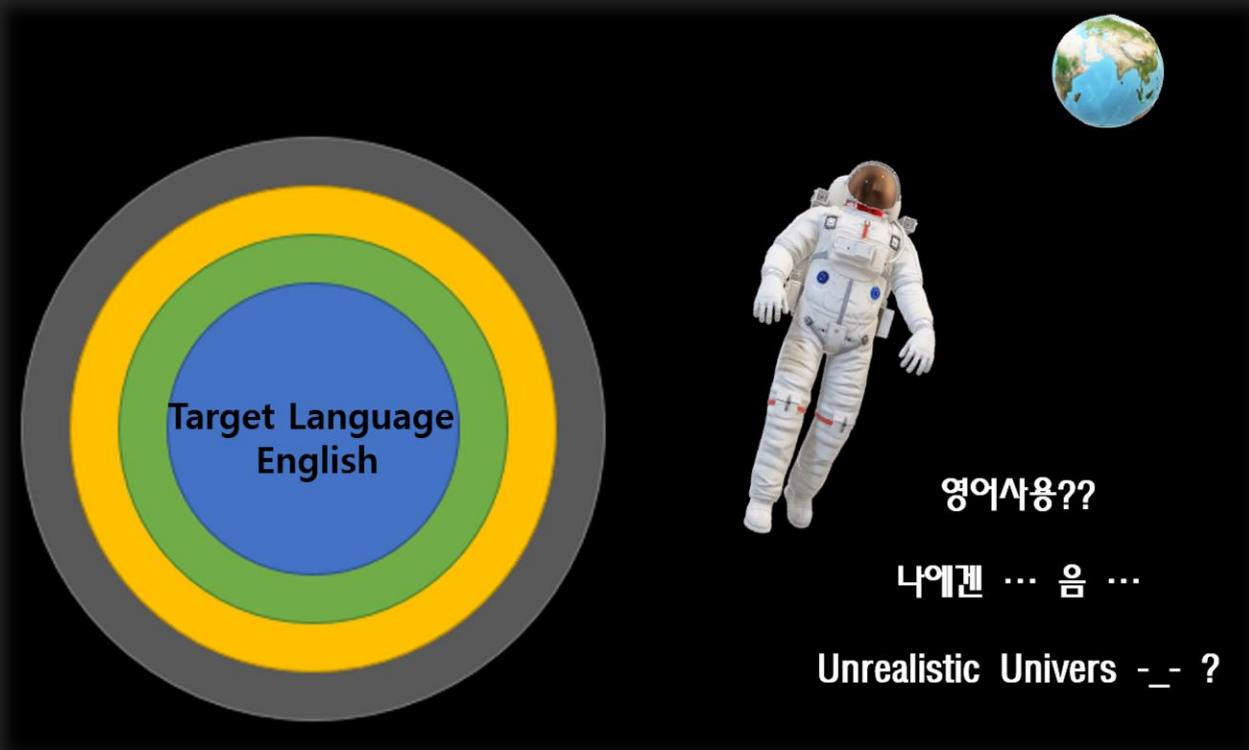
우리는 contents 보다는 발음 등등을 포함한 영어 갖추기 과정을 문제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읽고 말하고 들었을 때와 한국어를 읽고 말하고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 역시 언어적 색깔과 맛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언어는 사고를 전달하는 도구이기때문에

사고방식을 분석해 놓은 연구결과에서도 그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어, 특히 지금 우리 강의의 target language가 되는 "영어"처럼,

우리 중 그 누군가에게는 영어사용이

'비현실적인 세계 (Unrealistic Universe<분야>)' 가 되어버렸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영어 말하기 교육에 입문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른 시간을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봐주세요.

영어 말하기를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격려의 양과 피드백의 횟수가

과연 대부분의 아기들이 모국어를 익힐 때 받았던 만큼의

격려와 피드백 만큼이었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바~로 떠오르는 비슷한 기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feedback + correction = encouragement



영어 말하기를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격려의 양과 피드백의 횟수가  
과연  
대부분의 아기들이  
모국어를 익힐 때 받았던 만큼의  
격려와 피드백 만큼이었나요?

과연 피드백 횟수가  
격려의 양과 피드백 횟수가

영어 말하기 연습은 충분 했었나요?

피드백의 횟수는 만족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받은 심리적 격려는

영어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나요?

장면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발생했던 적이 있었나요?  
물론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영화의 한 장면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때로는 영어사회를 진행해야 될 일이나 통역을 진행하는 자리,  
Presentation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식은땀도 나고 쿵광거림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아시절, 여러분이 모국어를 익힐 때 받았던 격려와 피드백 만큼  
영어를 익힐 때도 맘껏 받으셨다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 영어사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잡고  
틀려도 좋을 영어사용을 담당하지 못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는 영어를 싫어하게 되거나,  
하고싶어도 가슴이 콩닥거리거나,  
또는, 지금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안감

No Need...

식은땀

영어 싫어..

심장 쿵광..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계면적은 웃음 뿐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의사전달은 말이 주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이렇게 많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정상적인 속도로 말하고 있지만  
목소리에서 떨림을 감지한다면  
이것은 긴장, 두려움 또는 분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목소리 톤, 피치 및 속도와 같은 항목 역시 비언어적 요소에 포함됩니다.

하품, 한숨, 박수, 손짓과 같은 소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정 뿐만 아니라 자세, 그리고 눈치까지!  
신체 언어는 그 또한 훌륭한 의사소통 신호입니다.

네, 영어로 자신의 생각과 의사표현을 말로써 (speaking) 잘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 신호를 학습하신다면 편리한 가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PT를 하려면 여러분도 바로 원고작성부터 염두에 두실 겁니다.  
일단 원고를 작성하면서 (writing)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써내려 가는 작업을 우선으로 하겠죠.

물론 작업하는 스타일에 따라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은  
speaking을 잘 하게 만드는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지요.

물론 기본 영작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춰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writing이기 때문에  
단계가 다른 얘기 일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쓰기 위해서는 수없이 내용을 정리하고 전달언어로 많이 써보는 연습은 당연합니다.  
이런 공통된 이야기는 우리 글말교실의 쓰기와 말하기 특강들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강조하고 있지요.

이를 위해서 먼저 반드시 해보아야 할 것이 Keep Order of your Thoughts & Opinion,  
그리고 그에 맞는 시간을 들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강에서는 위에 언급된 이 부분들은 모두 일단, 분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별 차이가 존재하는 언어의 기본영역을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구요.  
또 매 학기 별 여러분의 performance에 대한 과정을 지켜 본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어 하는 performance 부분으로만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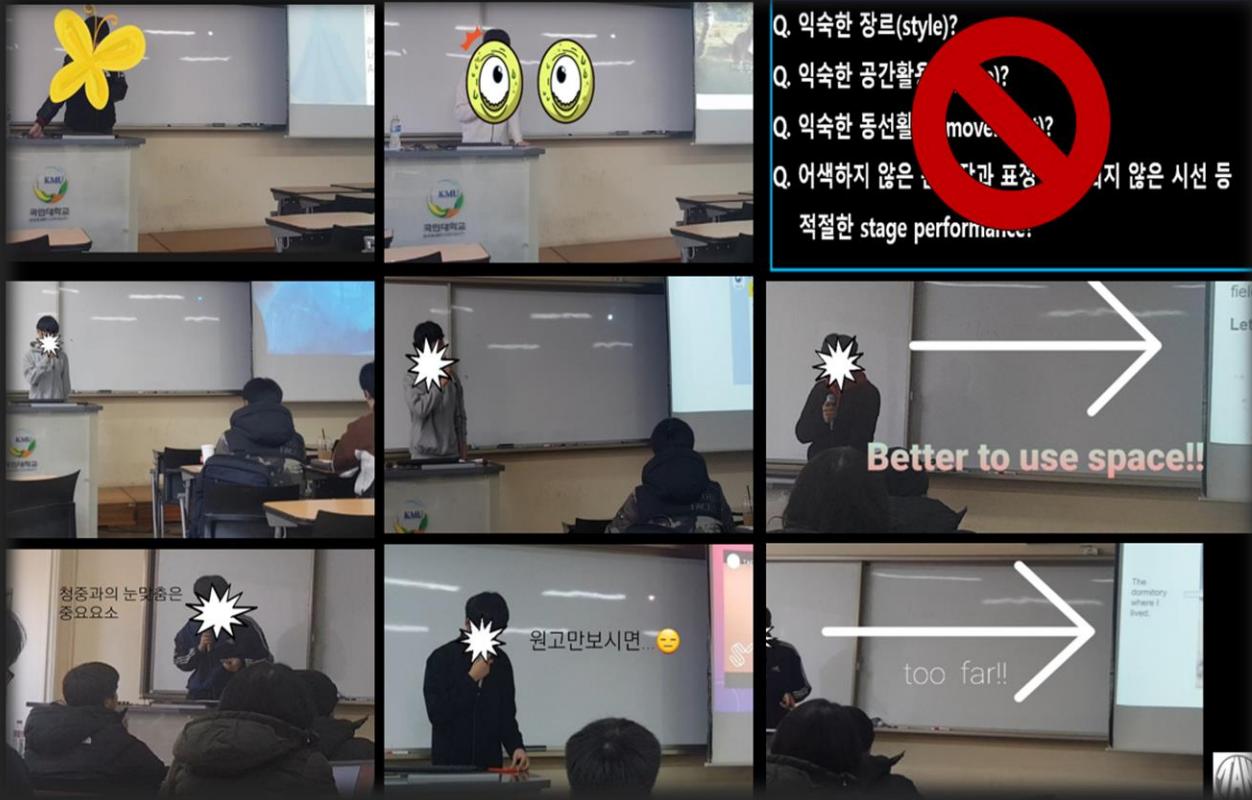
→ 원고 작성 (contents or message writing)

→ Keep Order of your Thoughts & Opinion

→ Time-consuming Process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발표 모습 중 공통된 부분입니다.



Q. 익숙한 장르(style)?  
Q. 익숙한 공간활용 (space)?  
Q. 익숙한 동선활용 (movement)?  
Q. 어색하지 않은 손동작과 표정, 고정되지 않은 시선 등 적절한 stage performance.

우리에게 익숙하고 어색하지 않은 것들,  
그런 모습안에서의 발표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각자의 '닉살'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지요?

즉, 우리는 이제 기존 것들에 대한 '원래는 이래야 해' 하는 고정관념과,  
원래의 내 모습은 이래, 하는 틀 안에 갇힌 Performance를 벗어나길 시도해 봐야 합니다.

Q. 익숙한 장르(style)인가요?

Q. 익숙한 공간활용 (space)인가요?

Q. 익숙한 동선활용 (movement) 인가요?

Q. 어색하지 않은 손동작과 표정, 고정되지 않은 시선 등 적절한 stage performance 인가요?

혹시 이런 부분이 어색해 보이지는 않나요?

Performance에 대한 feedback이 포함되거나 전반적인 발표에 대한 언급을 하다 보면 학생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Q. 내용전달만 잘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학사과정 중, 점수를 받기 위한 발표가 아니라,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학생 개개인이 부딪히게 될, 다양한 경쟁 속에서 무엇보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만큼 돋보이게 해야 할 발표자 자신의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Q. 내용전달만 잘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내용만큼 돋보이게 해야 할 발표자 자신의 모습은요?



청중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을

-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 최적의 표현기법으로 비주얼 화 시켜
-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선시 되는 자료는 잘 정리되었으나 그것을 전달하는 performer인 여러분 자신은요?

청중을 집중시킬 수 없는 발표가 되면 우리는 자리에 앉아 어떻게 하게 되죠?

네... 핸드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꾸준한 관리를 위해, 우리가 피부와 외모에 makeup을 하는 것처럼 이런 끼와 재능을 더욱 끌어낼 수 있는 다음 단계, 우리의 PT연출모습을 더 자연스럽게 해줄 그 다음 단계로 makeover는 필수입니다.

"PT는 언어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사용을 통한 전달 능력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저는 영어도 힘들지만 다른 이들 앞에 서는 것도 주저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격 탓이라고 도피처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한 번 잘 살피면 실은 '두려움' 이죠.

1. 타인 앞에 서는 두려움

2. 여럿의 타인들 앞에서의 발표

3. 게다가 생각전달의 언어적 필터링을 두, 세번이고 거쳐야 하는 외국어사용을 통한 발표

특히 MZ세대의 특징이라고 나오는 항목 중 "개인표현의 기회에 인색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앞에 나서기 보다는 개인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주저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한 시대를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는 세대를 굳이 알파벳으로 구분 지어 부르는 너무 억지스럽지만 의사소통의 한 측면에서 이러한 성향차이를 인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선생님들이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결국 MZ세대들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낙살!!**

낙살 : (사전적 의미) 부끄러운 기색 없이 비위 좋게 구는 짓

어색한 것을 탈출해서 뻔뻔함을 누리고 결국엔 두려움을 줄여야만 합니다.

Presentation

=

전달 능력

어색한데요... 영어로... 어떻게 해야... 하죠?

**낙살**

1. 타인 앞에 서는 두려움
2. 여럿의 타인들 앞에서의 발표
3. 외국어사용을 통한 발표

어색탈출

=

**뻔뻔장착**



Sept. 21, 2017. Bob Boilen-NPR Music Tiny Desk Concert, U.S.A.

"One look at (and listen to) the cross-dressing, Asian rock band SsingSsing and you would hardly think they're singing music inspired by traditional Korean folk. But SsingSsing isn't like any other band I've ever seen or heard."



발표는 어려워, 듣는 건 좋아



You've got to have some nerve !

이분들은 '낙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연예인들처럼 대중 앞에 서는 분들은 fear가 없을까요?

원래 개인성향과 성격이 남들과 달리 나서길 좋아해서 일까요?

영상에서 보이는 여자분의 주눅거림이 우리에게 그리 낯선 모습은 아닐 듯합니다. 실제 성격 역시 매우 소심하고 잘 나서지 않는 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audience 앞에서 좀 더 뽀뽀해 질때!

You get the att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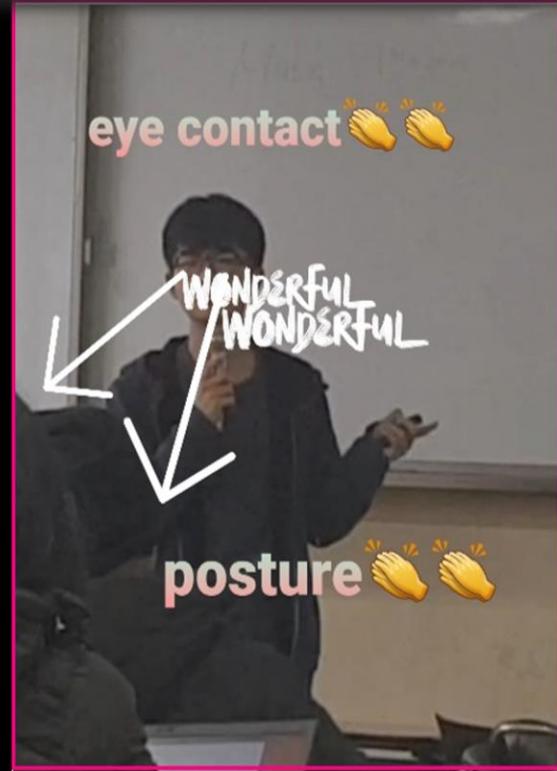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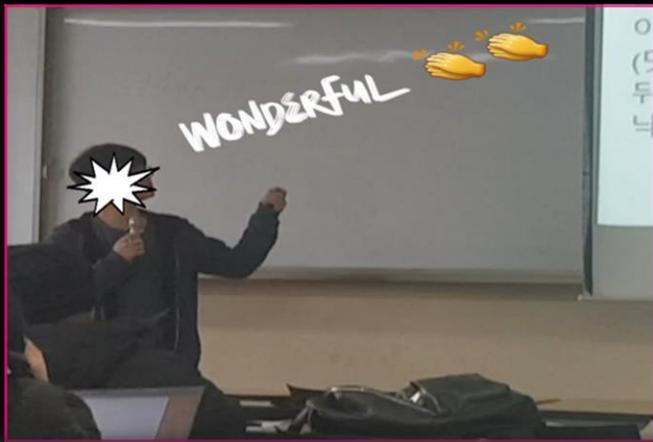
뽀뽀 모드에 들어가니 군중의 입장인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어집니다.

1) 철판을 깔자! You've got to have a nerve to Verb.

지금까지는 외국인들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이 될 수 있었지만

글로벌 시대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은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모습을 다시 봅니다.

아직 연습이 안된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PT과정을 연습하고

계속 함께 feedback 을 받으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특한 이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서 훨씬 자연스러운 에너지와 **넉살**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발표가 마무리 되는 학기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학생들의 허락 하에 공유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허락을 받아 발표를 연습하는 학생들의 영상을 함께 합니다.  
(After watching video clip)

정말 Two Thumbs Up!!  
시간이 더 주어지고 이대로 연습한다면  
훌륭한 Presenter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 더 달라 보이는 요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다음 요소에서 찾습니다.

- \* Accent
- \* Intonation
- \* Voicing
- \* Chunk Speaking
- \* Pause
- \* Speech Speed
- \* Gesture (eye-contact)
- \* Posture

Express your universe !!!

*When one tugs at a single thing in nature,*

*he finds it attached to the rest of the world.*

- John Muir

When one tugs at a single thing in nature, he finds it attached to the rest of the world.

- John Muir

"한 가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이 세상의 나머지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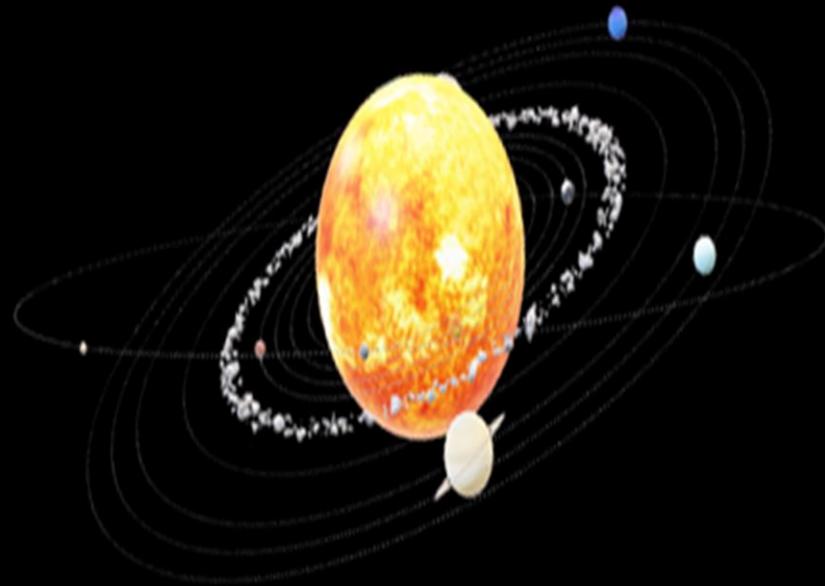
즉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은  
모국어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의사소통, 그 자체를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특이한 경험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의사소통이란  
노력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 하나입니다.

또한 모국어를 잘 배우고 익힌 사람일수록 영어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 축복을 잘 활용하기도 전에  
소심함, 부끄러움, 수줍음에서 비롯된 재능의 방해물들을  
줄여보는 연습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esenter Tammy PARK

Refe.1 T.K.Lee@WiseBrothers

Refe.2 이태경, "The Great Sparkling I", WiseBrothers, 2021년.

Refe.3 채서영, "Why on earth is English like that?", 사회평론, 2021년.

Artist Coldplay & BTS°

2022. Nov. 16

[https://youtu.be/viM\\_c-Fc7sc](https://youtu.be/viM_c-Fc7sc)

[https://youtu.be/URNRbxQHy\\_w](https://youtu.be/URNRbxQHy_w)

<https://youtu.be/bZYPI4mYwhw>